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셀프리더십, 학습몰입,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 관한 융합연구

배양자¹, 박순희^{2*}

¹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²동신대학교 기초교양대학 교수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Adaptation, Self-Leadership, Learning Commitment, and Career Adaptation

Bae-Yang Ja¹, Sun-Hee Park^{2*}

¹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ngshin University

²Professor, College of Basic & General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이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을 매개로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년, 학점수준, 취업의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28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적응은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활적응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활적응이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을 매개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요인으로는 연령, 학년, 취업의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적응을 위해서는 셀프리더십 및 학습몰입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생활 및 진로 상담 시 성별이나 학력 등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대학생활적응, 셀프리더십, 학습몰입, 진로적응성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s of University adaptation on career adaptation through self-leadership and learning commitment, and identified the regulatory effect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grade, grade level, and willingness to work). To this end, we analyzed the data for 289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learning commitment and self-leadership. However,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has an indirect effect on learning commitment and self-leadership rather than directly affecting career adaptation. Seco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ve a regulatory effect on the path through which University adaptation affects career adaptation through self-leadership and learning commitment. The factors that were regulated were age, grade, and willingness to work. Therefore, in order to adapt to university life and adapt to career, we developed a program to improve self-leadership and learning commitment, and suggested that customized guidance is needed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nd academic background in university life and career counseling.

Keywords :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adaptation, Career adaptation, Self-leadership, Learning commitment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Park(sunny681127@hanmail.net)

Received March 25, 2019

Revised May 28, 2019

Accepted June 20, 2019

Published June 28, 2019

1. 서론

대학생활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직업을 선택하여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치열한 취업경쟁과 취업 후 이어지는 고용불안감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1].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 후 조기퇴사율은 증가하고 있다. 좁아진 취업문을 뚫고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고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4명 중 1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2]. 조기 퇴직하는 사유는 조직 및 직무에 대한 적응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한편, 대학생 시기는 직업의 세계에 순조롭게 전환하고 새로운 직업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적응성을 기르는 시기이다[3]. 대학생들이 현대의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예측이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진로적응성이라고 할 수 있다[4]. 진로적응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진로 변화 및 진로장벽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5]. 진로적응성이 높을수록 조직의 요구에 잘 적응하며, 자기조절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로를 전환할 뿐만 아니라[6], 긍정적인 진로 발달과 진로준비를 촉진하게 한다[7].

대학생들의 진로적응은 대학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8].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에 진학하여 새로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대학환경의 여러 생활 장면에서의 요구와 도전들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적응 수준을 말한다[9].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과 대학 환경사이에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적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0].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문적, 사회적, 심리적 과제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때 대학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다[11]. 따라서 많은 대학에서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상과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적응과 이탈방지를 위해 다양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12].

또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인 참여에 의한 학습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습몰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13, 14], 학습몰입은 학습자들의 주된 과업인 학업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개인의 능력과 과제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로 현재 임하는 과업에 온전히 몰두하는 경험

을 의미한다[15]. 학습몰입은 학습상황에서 학습자가 자유롭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즐거운 상태에서 학습에 몰입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학습에 방해되는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특정 과목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숙련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16]. 이처럼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습몰입을 얼마나 자주 깊게 경험하는가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학습몰입을 경험하는 것은 진로문제 해결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8].

셀프리더십은 개인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이 주어질 때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끄는 힘이다[17].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아관리의 능동적 역량과 자기내부의 발전적 동기부여를 통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18]. 대학생들이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로서 셀프리더십이 필요하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게 해준다[19]. 또 셀프리더십은 대학생들이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자율적이고 적응적인 방향으로 수행하도록 한다[20]. 따라서 셀프리더십은 대학생들의 진로적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학생활적응은 진로적응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학습몰입 및 셀프리더십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과 학습몰입 및 셀프리더십,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들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와 환경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적응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융합적인 접근 방법과 적합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 둘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이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을 매개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년, 학점수준, 대학활동 경험, 취업의향)에 따라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학습몰입, 셀프리더십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밝히는 경로를 발견하고 이를 조절하는 변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셀프리더십, 학습몰입,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대학생활적응성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셀프 리더십과 학습몰입을 매개변수로, 진로적응성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매개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대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년, 학점수준, 대학활동 경험, 취업의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Fig.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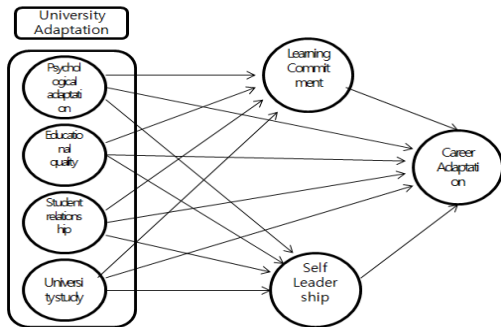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설문지는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는 2개 대학의 3학년과 4학년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8년 5월11일부터 6월22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동의하고 설문에 참여한 28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학생은 101명(34.9%), 여학생은 188명(65.1%)이었다. 연령은 25세미만 226명(78.2%), 25세이상 63명(21.9%)이었다. 학년은 3학년 183명(63.3%), 4학년 106명(36.7%)이었다. 졸업 후 취업의향은 미취업 90명(31.1%), 취업 199명(68.9%)이었다. 학점 수준은 A±는 64명(22.1%), B±는 157명(54.3%), C± 68명(23.5%)이었다. 대학에서 학생회나 동아리 등 활동 경험은 없다 126명(43.6%), 있다 163명(56.4%)으로 나타났다.

2.3 연구도구

2.3.1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Park[9]의 도구를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적 적응 5문항, 교육의 질 적응 4문항, 관계 적응 4문항, 대학공부 적응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3이었다. 또한, 심리적 적응 Cronbach's α 는 .882, 교육의 질 적응 Cronbach's α 는 .918, 관계적응 Cronbach's α 는 .902, 대학공부 적응 Cronbach's α 는 .855로 나타났다.

2.3.2 학습몰입

대학생들의 학습몰입은 Handelsman 외[21]가 개발한 척도를 He[22]가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사용한 도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몰입 9문항, 감성적 몰입 5문항, 행동적 몰입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6이었다.

2.3.3 셀프리더십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이 개발한 [23]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중심전략 8문항, 건설적 사고전략 6문항, 자정보상전략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9이었다.

2.3.4 진로적응성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은 Rottinghaus 등[24]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사용한 도구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2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3을 이용하여 정규성 분석과 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을 통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일반선형모형분석, 다중집단분석을 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도를 고려하여, 적합도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TLI, CFI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활적응, 학습몰입, 셀프리더십, 진로적응성의 기술통계치는 Table 2와 같다. 주요변인들은 정상분포조건(왜도<2, 첨도<4)의 왜도와 첨도를 이용한 정규성 검토 결과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다음 Table 1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ivision		n	%	Division		n	%
Gender	Male	101	34.9	Intent to work	No	90	31.1
	Female	188	65.1		Yes	199	68.9
Age	Under 25	226	78.2	Grades	A±	64	22.1
	Over 25	63	21.8		B±	157	54.3
					C/D±	68	23.5
Grade	3	183	63.3	Activity	No	126	43.6
	4	106	36.7		Yes	163	56.4

3.2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연구 모형은 $\chi^2=644.033(df=303, p<.001, CFI=.940, TLI=.930, RMSEA=.063$ 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모든 요인들의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값이 0.6이상(.614-.800)이었으며,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값이 0.8이상(.826-.949)으로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주요변인들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적응성을 포함한 11개의 모든 요인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11 - r=.68$).

Table 2.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Division		M±S.D	Skewness SD:0.143	Kurtosis SD:0.286
University Adaptation	1	3.20±.827	-.108	.009
	2	3.55±.762	-.240	.705
	3	3.67±.730	-.530	1.179
	4	3.04±.889	.116	-.216
Self Leadership	5	3.43±.729	-.421	.674
	6	3.47±.667	-.252	1.145
	7	3.45±.804	-.412	-.126
Learning Commitment	8	3.33±.794	-.555	.237
	9	3.22±.746	-.468	.555
10	3.14±.777	.027	-.075	
Career Adaptation		3.59±.687	-.190	.806

1.Psychological, 2.Educational quality, 3.Student relationship, 4.University study, 5.Behavioral center, 6.Constructive thinking, 7.Nature reward, 8.Recognizance, 9.Emotion, 10.Behavior

3.3 연구모형 적합도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Table 3와 같다. 연구 모형은 $\chi^2=712.328(df=304, p<.001, CFI=.928, TLI=.917, RMSEA=.068$ 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3. Model Fit

Division	χ^2	df	CFI	TLI	RMSEA
Model	712.328	304	.928	.917	.068

3.4 매개효과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검토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에서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에 이르는 경로에서 교육의 질 적응, 관계 적응, 대학공부 적응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적응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이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이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육의 질 적응, 관계 적응, 대학공부 적응은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을 매개할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4. Path analysis

Path	Estimates		S.E	C.R	P	
	B	β				
Self Leadership	1	.061	.094	.033	1.878	
	2	.250	.315	.048	5.173	***
	3	.262	.312	.049	5.374	***
	4	.238	.348	.042	5.632	***
Learning Commitment	1	-.009	-.013	.042	-.209	
	2	.222	.268	.060	3.712	***
	3	.196	.224	.060	3.269	**
	4	.338	.473	.055	6.149	***
Career Adaptation	1	-.053	-.071	.036	-1.457	
	2	.110	.120	.061	1.805	
	3	.041	.043	.062	.666	
	4	-.031	-.039	.066	-.467	
	5	.447	.388	.105	4.274	***
	6	.512	.464	.111	4.612	***

1:Psychological, 2: Educational quality 3:Student relationship 4:University study 5:Self Leadership 6:Learning Engagement, * p<.05, ** p<.01, ***p<.001

Table 5. Mediation analysis

	①		②		③	Sobel test	p
	β	S.E	β	S.E			
1	-.009	.042	.512	.111	.005	-.214	.830
2	.061	.033	.447	.105	.027	1.696	.090
3	.222	.060	.512	.111	.114	3.804	.000
4	.250	.048	.447	.105	.112	3.296	.000
5	.196	.060	.512	.111	.100	2.666	.007
6	.262	.049	.447	.105	.117	3.331	.000
7	.338	.055	.512	.111	.173	3.689	.000
8	.238	.042	.447	.105	.106	3.404	.000

①independent→mediate, ②:mediate→dependent, ③indirect effect①×②.

1. Psychological→Learning Commitment→Career Adaptation
2. Psychological→Self Leadership→Career Adaptation
3. Educational quality→Learning Commitment→Career Adaptation
4. Educational quality→Self Leadership→Career Adaptability
5. Student relationship→Learning Commitment→Career Adaptation
6. Student relationship→Self Leadership→Career Adaptation
7. University study→Learning Commitment→Career Adaptation
8. University study→Self Leadership→Career Adaptation

3.5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이용하였다. 다음의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대학생활적응이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을 매개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년, 학점수준, 대학활동 경험, 취업의향)에 따라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경로분석에서 유의한 8개의 경로(경로1: 교육의 질 적응⇒셀프리더십, 경로2: 관계적응⇒셀프리더십, 경로3: 공부적응⇒셀프리더십, 경로4: 교육의 질 적응⇒학습몰입, 경로5: 관계적응⇒학습몰입, 경로6: 공부적응⇒학습몰입, 경로7: 셀프리더십⇒진로적응성, 경로8: 학습몰입⇒진로적응성)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학년, 취업의향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조절변수는 연령, 학년, 취업의향으로 나타났다.

Table 6. Moderated effect

Model	Assuming model		
	DF	CMIN	P
Gender	8	4.609	
Age	8	22.482	**
Grade	8	16.672	*
Grades	16	17.186	
Activity	8	11.710	
Intent to work	8	28.287	***

* p<.05, ** p<.01, ***p<.00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연령의 잠재변수 유의성 검증 결과, 학습몰입이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25세미만은 .478로 나타나 25세이상 .421보다 높게 나타났다. 25세 이상 학생은 셀프리더십이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593으로 25세 이하 .39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25세 이상은 25세미만 보다 제약경로 2,3,5,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5세 이상이 25세미만 집단에 비해 관계적응과 대학공부적응이 학습몰입 및 셀프리더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셀프리더십이 진로적응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습몰입은 25세미만이 25세 이상 보다 진로적응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7. Age latent variable significance result

Path	Under 25		Over 25	
	B	C.R	B	C.R
1	.378	5.246***	.048	.385
2	.321	4.941***	.431	3.234**
3	.338	5.325***	.531	3.110**
4	.354	4.349***	-.169	-1.091
5	.223	3.046**	.397	2.401*
6	.421	5.598***	.568	2.632**
7	.395	4.503***	.593	4.447***
8	.478	5.032***	.421	3.034**

1: Educational quality⇒Self Leadership, 2: Student relationship⇒Self Leadership, 3: University study⇒Self Leadership, 4: Educational quality⇒Learning Commitment, 5: Student relationship⇒Learning Commitment, 6: University study⇒Learning Commitment, 7: Self Leadership⇒Career Adaptation, 8: Learning Commitment⇒Career Adaptation
* p<.05, ** p<.01, ***p<.00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학년의 잠재변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3학년이 4학년보다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의 제약경로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학습몰입이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3학년 .557로 나타나 4학년 .510 보다 높게 나타났고, 셀프리더십이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390으로 4학년 .3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약경로 2,3,5,6에서 4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8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3학년이 4학년보다 학습몰입 및 셀프리더십이 진로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4학년이 3학년 보다 관계적응과 대학공부적응이 셀프리더십에, 대학공부적응이 학습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8. Grade latent variable significance result

Path	Third grade		Fourth grade	
	B	C.R	B	C.R
1	.442	5.734***	.014	.129
2	.306	4.450***	.314	3.164**
3	.288	4.468***	.624	4.601***
4	.456	4.815***	.073	.668
5	.158	1.904	.272	2.780**
6	.309	3.814***	.696	4.892***
7	.390	4.631***	.325	2.312*
8	.557	5.720***	.510	3.396***

1: Educational quality⇒Self Leadership, 2: Student relationship⇒Self Leadership, 3: University study⇒Self Leadership, 4: Educational quality⇒Learning Commitment, 5: Student relationship⇒Learning Commitment, 6: University study⇒Learning Commitment, 7: Self Leadership⇒Career Adaptation, 8: Learning Commitment⇒Career Adaptation
* p<.05, ** p<.01, ***p<.00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취업의향 여부는 잠재변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학습몰입이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미취업은 .643로 나타나 취업의향 .485보다 높게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이 진로적응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취업의향은 .455로 나타나 미취업 .29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취업은 취업의향보다 제약경로 1,4,에서 높게 나타났다. 취업의향은 미취업보다 제약경로 6에서 높게 나타났다. Table 9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미취업 집단이 취업집단에 비해 학습몰입이 진로적응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의 질 적응이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취업의향이 있는 집단이 미취업 집단보다 셀프리더십이 진로적응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대학공부 적응이 학습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Intention to work latent variable significance result

Path	Unemployment		Employment	
	B	C.R	B	C.R
1	.510	4.092***	.296	5.174***
2	.185	1.766	.317	6.118***
3	.164	1.656	.317	5.923***
4	.552	3.813***	.313	4.288***
5	.141	1.253	.238	3.632***
6	.247	2.217*	.434	6.157***
7	.292	2.670**	.455	6.059***
8	.643	4.092***	.485	6.570***

1: Educational quality=Self Leadership, 2: Student relationship=Self Leadership, 3: University study=Self Leadership, 4: Educational quality=Learning Commitment, 5: Student relationship=Learning Commitment, 6: University study=Learning Commitment, 7: Self Leadership=Career Adaptation, 8: Learning Commitment=Career Adaptation
 * p<.05, ** p<.01, ***p<.00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이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을 매개로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년, 학점수준, 취업의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활적응을 독립변수로,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을 매개변수로, 진로적응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대학생 289명을 대상으로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육의 질 적응, 관계 적응, 대학공부 적응은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도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심리적 적응은 학습몰입과 셀프리

더십에 미치는 영향이 없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성 보다는 교육의 내용 및 학생들과의 관계, 대학 공부와 같이 직접적으로 학업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변인들이 학습몰입 및 셀프리더십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육의 질 적응, 관계 적응, 대학공부 적응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보다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한다고 해서 진로적응을 잘 한다기보다는 학습자가 학습에 몰입하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고 특정과목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숙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는 연구들은 Choi 와 Ju[25]와 No와 Bai[26]의 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Choi 와 Ju[2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밝히고 셀프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대학생활적응이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을 매개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요인으로는 연령, 학년, 취업의향으로 나타났다. Sin과 Keon[27]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별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대학생의 진로지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적응을 위해서는 셀프리더십 및 학습몰입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업 및 진로적응을 위한 상담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학생 및 진로 상담 시, 성별이나 학력 등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내에 전문상담인력을 상주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적응을 위한 매개 및 조절 변인들을 발견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J. G Kim & K. H. Lee. (2016).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Adaptability and Occupational Engagement: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Emotional and Personality Career Difficulti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3), 205-223.
- [2] Korea Employers Federation(2016). *2016 new employee recruitment survey*. <http://kostat.go.kr>
- [3] A. Hirschi.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 [4] P. J. Hartung, E. J. Porfeli., & F. W. Vondracek. (2008). Career adaptability in childhood.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7(1), 63-74.
- [5] P. J. Rottinghaus, S. X. Day & F. H. Borgen. (2005). The Career Futures Inventory: 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3-24.
- [6] V. Germeijs & K. Verschuere. (2007).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Consequences for choice implementation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2), 223-241.
- [7] J. K. Young.(2009). *The Development of the Adaptability Scale for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8] A. K. Chung, J. H. Kim & J. S. Kim. (2013). The Effects of Self-Respect,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Learning Persistenc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6(6), 11-18.
- [9] J. Y. Park.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University Life Adaptation Scale for Non-traditional Student.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5(3), 111-135.
- [10] K. A. Chung & J. H. Cho. (2015).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5), 143-155.
DOI : 10.15207/JKCS.2015.6.5.143
- [11] H. W. Jong. (1996).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Studies on Korean Youth*, 25, 83-101.
- [12] J. A. Kim, J. S. Kang & K. S. Seo. (2017). A Convergence Comparison of the Stress,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College Admission process and Grad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2), 99-112.
- [13] S. H. Kim & S. Y. Park. (2014).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557-1565.
- [14] H. K. Lee, L. A. Kim, J. E. Kim, Y. R. Lee, J. M. Lee, H. S. Han & H. K. Hwang. (2017). Converged Factors Affecting Learning Flow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5), 15-23.
DOI : 10.22156/CS4SMB.2017.7.5.015
- [15] S. R. Noh & S. A. Bae. (2014).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on College Adaptation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2), 343-362.
- [16] J. H. Kim & M. K. Park. (2018).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ing Flow on in Self-Regulated Learning: Mediating Effect of Metacogni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349-357.
- [17] C. C. Manz & H. P. Sims. (1991).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9(4), 18-35.
- [18] M. K. Jang & H. Y. Kim. (2018).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elf-esteem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51-59.
- [19] C. C. Manz & H. P. Jr. Sims. (2001). *New super 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 [20] S. H. Lee, B. G. Nam & S. M. Cheon.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of College Students and Career Adaptability. *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eimyung University*, 37(1), 81-107.
- [21] M. M. Handelsman, W. L. Briggs, N. Sulliva & A. Towler. (2005). A measure of college student course engag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8(3), 184-191.
- [22] Y. C. He (2009). *Self-determination among adult Chinese English language learners: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autonomy support, intrinsic motivation, and engag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23] J. D. Houghton & C. P. Neck. (2002). The revised

-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 [24] P. J. Rottinghaus, S. X. Day & F. H. Borgen. (2005). The Career Futures Inventory: 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3-24.
- [25] E. S. Choi & E. J. Ju. (2016). Influ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ocia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6), 145-173.
- [26] S. R. Noh & S. A. Bae. (2014).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low on College Adaptation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2), 343-362,
- [27] S. Y. Sin & S. Y. Kwon. (2016). A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factors of college students: utilizing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6), 293-318.

배 양 자 (Yang-Ja Bae)

[정회원]



- 2009년 3월 ~ 2012년 8월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0년 1월 ~ 2014년 2월 : 전남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
- E-Mail : yjbae19@hanmail.net

박 순 희 (Sun-Hee Park)

[정회원]



- 2009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18년 8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 가족상담 및 복지, 외국인 유학생
- E-Mail : Sunny681127@hanmail.net